

7.26 대회 직후 즉각 국회의사당 앞 농성에 돌입!

7월 26일 단식농성 2일째

대회 관련 방송사 인터뷰 요청 쇄도



역대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강타한 7월 26, 27일. 여의도 단식농성장도 예외일 수 없었다. 새벽의 기습적인 폭우는 농성장 천막 기둥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력했다. 밤새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은 빗물이 그칠 줄 없이 새는 농성장을 보수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없이 삭발 단식투쟁의 이틀째를 보냈다.

7.26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대회와 관련, 이날 무려 147건(협회 잠정집계)의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반영하듯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였다. 아침 7시 20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협회 이용우 이사가, 아침 7시 48분 'BBS 전경윤의 아침저널'에는 협회 한지태 차장이 전화 인터뷰에 응하여,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과 원유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특히, 단식 이틀째를 맞은 이승호 회장은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KBS방송국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가, 'KBS1라디오 농수산오늘' (7.30일 방송예정)에 출연하였다. 이회장은 이날 녹화방송에서 먼저 본인이 단식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낙농가의 절박한 심정을 설명했다. 또한, 목장원유가 현실화는 농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최대 낙농현안이며 최악의 경우 전 낙농가가 납유거부 투쟁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한 낙농육우 생존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7월 28일 단식농성 3일째

6차 협상 양측입장 변화 없이 또다시 결렬

이날 14시부터 진행된 낙농진흥회 6차 소위원회는 협회 임원진이 단식농성 중에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유업체가 어떤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농성장으로 회의결과를 묻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였다.

양측입장 변화 없이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날 협상에서 생산자측 대표들은 이승호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유업체가 더 이상 시간끌기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



력히 전달하였다. 생산측 대표들은 생산자 요구안인 173원/ℓ 인상안에 대한 수요자측의 수용여부와 낙농진흥회의 중재안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유가공협회 김시환 전무는 회원사 입장을 들어 밝히겠다고 답변하였고, 낙농진흥회는 7.31일 7차 소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제시기로 하였다.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측은 수요자, 낙농진흥회의 입장 변화가 있을 시 추가논의를 위한 기한을 8.5일까지 연장기로 하였다.

익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대회이후 3일째 폭우가 계속된 농성장은 숙연한 분위기속에 이승호 회장의 단식투쟁을 격려하는 지역농가들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농식품부도 농성장을 찾아, 낙농가들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권찬호 축산정책관, 노수현 축산경영과장, 이연섭 사무관에게 농가들은 당장이라도 납유거부를 들어가자고 할 정도로 현장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전달하였다. 낙농희생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낙농가 생존을 위한 원유가현실화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차별적인 유제품 무관세물량 개방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고, 농식품부가 농정부처답게 농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오전에 농성장을 찾은 낙농진흥회 문제풍 회장에게는 농성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낙농진흥회가 농가를 위한 조직이라면, 정부나 유업체 눈치를 보기 보다는 원유가격결정기구로서 농가의 처절한 입장을 직시하여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7월 29일 단식농성 4일째

투견도 싸우기 전에 굶는다!

7.31일 협상시한이 임박한 단식농성 4일째 정오. 모처럼 해가 뜬 여의도 농성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전국 낙농가 대표들이 상경한 가운데 긴급 목장경영 안



정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비상대책위원들은 7.31일 마지막 협상에서도 또 다시 낙농진흥회(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유업체가 시간끌기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낙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는 정부와 유업체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원유가 현실화는 물론 향후 2세 낙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목장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납유거부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전단계로 8.3일 1일간 전국적으로 집유거부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연합)지회에서는 소속 낙농조합에 8.3일 집유차량 운행 중단 요청과 함께 신속한 원유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해당 유업체에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낙농진흥회, 해당 유업체에 문서로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다.

협회장의 건강을 우려한 많은 비상대책위원들이 단식을 만류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이승호 회장은 “사냥개도 싸우기 전에 굶는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조만간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며 일단 단식만류를 거부하였다.



한편 정치권 등 농성장 지지방문이 줄을 이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하

여, 낙농가가 정당한 원유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농식품부가 물가당국의 눈치를 너무 살펴 농민들의 원유가 현실화 및 낙농회생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낙농가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원유가현실화 문제를 조기에 매듭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낙농가 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농성장을 찾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사료값도 못잡고 교환율정책으로 오히려 사료값 인상을 부채질해놓고, 이제는 낙농가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승호 회장의 건강에도 큰 우려의 뜻을 표하고 이번 문제가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단체장의 지지방문도 이어졌다. 농협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등이 방문하여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승호 회장이 단식을 빨리 풀 것을 당부하였다.

7월 30일 단식농성 5일째

8·3 집유거부 투쟁, 낙농역사 다시 쓰자!

마지막 협상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0일(토). 농성장은 뜨거운 햇살과 함께 폭염이 찾아왔다.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승호 회장은 힘겹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이날 생업을 접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전국 낙농동지들에



계 8·3 집유거부 투쟁의 동참을 호소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회장은 긴급담화문에서 “그깟 유업체를 상대로 단식투쟁을 결심한 것이 아니다. 삼시 세끼 다 먹어가면서 투쟁을

한다면 우리의 절박함을 누가 알아주겠냐”면서 본인이 단식을 결심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식품부, 통계청, 유업체 가릴 것 없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원유가 현실화는 물론이고 후대 2세 낙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목장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회장은 “8·3 집유거부 투쟁은 우리 낙농가 스스로 새로운 낙농역사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작이다”라며 “지역 낙농가 한명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국 낙농가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끝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로 낙농동지들에게 금번 투쟁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뒤 이어,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된 2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원유수급 안정대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협회는 “우유 부족은 없다”, “부족한 양은 수입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것이 정부대책의 전부이며 우유수입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하였다. 또한 우유는 부족한데 낙농가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낙농가대책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농정부처의 모습이 아니며 낙농진흥회 뒤에 숨어 원유가 논의조차 방해하는 행위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8월 3일 집유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며, 만에 하나 집유거부, 납유거부가 현실화되면 어떤 변명으로도 농식품부는 자유롭지 못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였다.



오후 7시. 김성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 양주)은 휴 일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찾아, 지역구인 양주에서 쪼갯소 70두를 키우는 지역 낙농가의 예를 들며 낙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낙농이야말로 장치산업이자 진짜 농업인

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의원은 당·정차원에서 낙농가의 생존권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식투쟁중인 이승호 회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5일째 농성장을 지킨 흥윤기 부회장은 이승호 회장이 죽기 살기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들이기 위해 곁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와 유업체가 계속적으로 농민 생존권을 갖고 장난친다면 전국 낙농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7월 31일 단식농성 6일째

7차 협상 격론 끝에 결렬, 파국 맞나

원유가 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오후 2시. 낙농진흥회에서 개최된 7차 원유가협상이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이날 협상에서는 60원, 81원의 진흥회안이 제시되었다. 협상 40일만이다. 당초 진흥회는 중재안을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1,080까지 진흥회 안이 있다' 고 밝혀와 낙농가들을 분노케 했다. 생산자측 협상대표들은 진흥회 제시안을 듣고 허탈해하면서 진흥회가 계속적으로 현장실정을 무시한다면 굳이 협상장을 진흥회에 꾸릴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생산자 대표들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목장경영 안정이 우선임을 재차 밝히고 수지가 맞지 않는 우유는 생산할 수 없다며, 수요자측 대표들에게 목장현장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양측이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수요자측은 생산자가 요구한 목장경영 실태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진흥회 제시안 수준 이상으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8월 5일이 협상마감시한임에도 양측은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7차 소위원회가 마무리되었다. 집유거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 협상장에는 농식품부가 배석해 정부가 중재할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채 회의 내내 무겁게 자리를 지켰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곧장 ‘꼭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면적인 집유, 납유거부 투쟁으로 접어들 경우 단순히 원유가 현실화문제 뿐만 아니라, FTA를 비롯한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낙농진흥회의 철패문제, 유업체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책임 지울 것이라고 정부, 진흥회, 유업체에 강력히 경고했다.

단식농성 6일째 여의도 단식농성장은 굶은 날씨와 휴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농지도자들의 지지방문이 줄을 이었다. 특히 충북지역 낙우회장단, 평택지역 낙우회장단은 농성장을 찾아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협회 중앙회 지침에 따라 8월 3일 집유거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오만방자한 정부와 진흥회, 유업체에 낙농가들의 저력을 보여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8월 3일 전국적인 집유거부 투쟁이 임박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농성장에는 언론사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